



호랑이 '공룡 징크스' 방망이로 깬다



KIA, NC에 올 시즌 1승 5패 열세 '안방 극강' 필·호수비의 강한울 '키맨' 주말 홈 3연전 자존심 되찾기 총력전

'호랑이 군단'이 사자를 넘어 공룡 징크스 깨기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에게는 너무 어려운 그들이었다. 주말 안방에서 상

대하게 되
는 NC는 삼성과 함께 대표적인 KIA의 천적으로 꼽히는 팀이다. NC가 1군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던 2013년, 7승1무8패로 겨우 우위를 점했던 KIA는 지난해에는 5승11패의 상대전적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올 시즌 성적표도 형편없었다.

지난 4월 안방에서 NC에게 싸움이 패를 당했고, 적지로 건너가 치른 원정 경기에서도 2패 뒤 겨우 1승을 챙기고 돌아왔다. NC에 강한 면모를 보였던 에이스 양현종이 두 차례 출격에 나섰다지만 승리 없이 1패만 기록하면서 패배의 충격은 더 컸다.

KIA에게는 넘고 싶은 벽이자 깨야 하는 징크스다. 지난 주말의 기분 좋은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KIA는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삼성을 상대로 1-0, 2-0 영봉승을 거두며 4년 만에 삼성전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다. 명품 투수전으로 지독하게 따라다니던 사자 공포증에서 벗어났다.

이번에는 타격 싸움이 될 전망이다. KIA만 만나면 더 불을 뿜는 NC의 방망이, KIA도 화력으로 맞불을 날려야 한다.

'안방 극강'인 필과 '안방 부진'의 강한울이 승패를 좌우할 주요 멤버다.

꾸준한 필은 특히 안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필은 LG전 역전 끝내기 홈런, 두산전 끝내기 안타로 올 시즌 두 번이나 홈팬들에게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선물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큰 힘이 된다'는 필은 성적에서도 안방 극강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경기까지 올 시즌 7개의 홈런 중 6개를 챔피언스필드 담장 밖으로 넘겼다. 홈 23경기 타율은 0.330, 원정 23경기 타율은 0.312다. 안방에서 홈으로 불러들인 타자는 23명, 원정 경기 타점은 13이다. 필의 안방 본능이 필요한 주말이다.

강한울은 팀이 NC 징크스를 깨기 위해 먼저 자신의 홈 징크스를 깨야 한다. 안방에서 강한 필과 달리 집 나가면 필멸 나는 강한울이다.

27일 현재 원정 23경기에서 강한울은 80타수 26안타로 0.325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홈에

서 치른 22경기의 타율은 76타수 14안타, 0.184에 그치고 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상대를 흔들어야 하는 강한울이다. 수비에서도 강한울의 역할이 중요하다. 4년 만의 삼성전 위닝 시리즈에는 강한울의 호수비가 있었다. 강한울은 24일 1회 2사 1·2루에서 2루수 베이스를 넘어 중앙으로 빠져나가는 안타성 타구를 누아채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수비의 도움을 받은 선발 스티븐슨은 이후 8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하며 2-0 영봉승을 합작했다.

안방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필과 강한울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는 주말 3연전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한울



박태환, 인천AG 메달 박탈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공식 발표

선수인 장원수의 도핑 결과를 반영한 인천 아시안게임 최종 메달 순위를 확정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 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로부터 선수자격정지 18개월과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등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 샘플 채취일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작해 내년 3월 2일 끝난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OCA는 FINA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뒤 박태환이 인천 대회에서 수확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모두 박탈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종목별 순위도 조정했다.

박태환이 닙저타오(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땀던 남자 자유형 100m에서는 3위 시오우라 신리(일본)에게 은메달, 4위 하라다 라마루(일본)에게 동메달이 돌아갔다.

단체전인 남자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에서 박태환과 함께 동메달을 딴 대표팀 동료 선수들의 메달도 무효가 됐다. 남자 계영 400m에서는 홍콩, 계영 800m에서는 싱가포르, 혼계영 400m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반면 장원수는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제라놀이 검출돼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해머던지기 금메달을 박탈당했다가 이를 되찾았다.

OCA는 "의도적인 투여가 아닌 음식 오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에게 금메달을 돌려주기로 이달 초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홍콩, 싱가포르의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수가 바뀌었다.

예초 금메달 79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84개였던 한국의 메달 수는 금메달 79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79개로 줄었다.

하지만 종합순위는 중국에 이어 2위로 변동이 없다. 연합뉴스

광주야구협회, 초·중·고 14개교에 야구용품



광주광역시야구협회 나훈 회장이 28일 무등경기장에서 광주지역 야구 육성학교 초·중·고 14개교에 30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증정했다. 나훈 회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야구부를 육성하는 학교장 및 감독,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2012년 야구협회장에 취임한 나훈 회장은 매년 지역육성학교에 3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증정하고 있다. <광주야구협회 제공>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금지약물 투여 혐의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수영스타 박태환(26)의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을 박탈했다고 27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OCA는 이날 박태환과 중국 해머던지기